

불자 자원봉사활동 '맑음 속 흐림'

전년대비 인원 11%·봉사시간 25% 증가

조계종 복지재단 발표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역 편중도 심하다. 2001, 2002년에 걸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직영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35개 복지시설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20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표한 '자원봉사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는 2001년 대비 994명(11%)이 증가해 연인원 9,4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자원봉사 활동 전체 시간 역시 지난해에 비해 7,510시간(25%) 증가한 총 36,637시간이었다. 불자 봉사자 1명의 경우 1년 평균 3.4일에서 3.8일로 봉사시간이 늘어

식사지원 등 단순 봉사 전체의 40%

교육 마친 봉사자 연 50명 배출 불과

지역간 심한 불균형... 서울·경기에 편중

나는 추세다.

봉사활동 연인원이 994명으로 증가했지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매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신규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50여 명에 그치고 있었다. 이점에서 볼 때 기존 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신규 봉사자들의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분야별 통계에서는 식사지원 봉사(음식조리, 밀반찬 배달 등)가 15,288시간으로 전체 봉사활동

(37,986 시간)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 병원 봉사 4,282 시간, 전문봉사(호스피스 봉사 등) 2,593 시간, 간병 봉사 2,227 시간, 목욕봉사 2,227 시간, 의료지원 2,722 시간으로 각각 6%미만에 그쳐, 봉사 영역 편중현상을 보였다.

봉사 지역의 편중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복지시설 50개 중 35개가 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역 편중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봉사 영역 다각화와 전문화, 특히 호스피스나 장애인 학습지원 등 전문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일반인들을 봉사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 자원봉사 상여보험 가입 등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교계 복지전문가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복지재단이 호걸 복지과장은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형식적 자선 행위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400여명은 21일 수락산 동막골 터널 공사 현장(6공구, 시공사 롯데건설에서 관통도로백지화, 공사즉각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고속철 천성·금정산 구간

노 당선자에 공사중단 제언”

인수위, 북한산·금정산 대책위와 간담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공사중지를 노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연석회의는 “22일 간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에 서울의관순환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취임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시민총과대책위원회도 “인수위 경제2분과와 환경분과가 대책위와 합의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2월 6일로 예정된 공사발주도 금지시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할 것을 22일 간담회에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울스님(시민총과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인수위가 공사 중지와 발주 금지를 약속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물리적인 행동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기존 노선을 관철하겠다고 밝혀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dnam@buddhapia.com



◀중하스님(사진 왼쪽)과 법장스님(오른쪽)이 조계사 뒤편에 이웃하여 선거본부를 차렸다.



두 후보의 공명선거 다짐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선거일정이 2월24일로 확정되면서 출마가 유력한 중하, 법장 두 스님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24일과 27일 각각 후보 추대식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조계사 뒤편에 마련한 선거본부를 차렸다. 중하스님은 종단협 회의실을, 법장스님은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한입불교교류회의 사무실을 선거본부로 사용한다. 외형상으로 보면 두 후보가 이웃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전

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양측은 깨끗한 선거를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양측은 이미 선거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나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빠르고 확실한 득표 전략을 찾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돈과 비방이 오가는 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중하스님의 범어문중과 법장스님의 덕승문중이 종책이나 인물론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문중 이기주의’에 집착할 경우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양자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는 양상이다. 제3후보로 거론되던 법승스님과 정연스님의 한 측근은 기자와 나는 전화통화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3후보론’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특히 정연스님의 경우는 본인의 의중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막판에 선거구도가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 혼란양상과 함께 공명선거가 말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 변화와 맞물려 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불자들이 많고, 이번 선거는 바로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시선이 이웃한 두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선거 후 승패가 갈리더라도 좋은 이웃으로 남길 기대한다.

한영우 기자

천년고찰 제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 안에서 왕생극락하시어
031)948-4440
인근도매인·납골당

인터넷에서 현대불교신문 판형 그대로 보세요

광고 포함... 21일부터 buddhanews.com PDF서비스

인터넷 일간 buddhanews.com에서 현대불교신문을 판형 그대로 보실수 있게 했습니다.

본사가 1월 2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PDF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의 클릭으로 신문의 각 면을 화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PDF 서비스는 각 지면의 기사와 광고를 함께 볼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PDF 서비스 이용 방법
buddhanews.com 접속 -> PDF 서비스 배너 클릭 -> 원하는 지면 클릭

(주의, 붓다뉴스 회원(무료)가입을 하셔야 이용 가능하며 PDF를 구현하는 Acrobat Reader 한글판을 인내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들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령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산의 금강염주를 국내 빈 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원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을 서산대사의 고령이며 원로 대사께서 해골뿔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약을 포기하고 잠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렴성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봉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학과와 합격률이 보기가 만 배도 많아서 역운과 화를 쫓고 동사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령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이 날아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상유광선과 강력한 힘이 발생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만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령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서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칸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 : 743-02-563237 정혜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하실 분이 꼭 지켜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기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적기 위하여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처님 사용하시면 된다. 정안 3일간 첫째날은 정안에 있는 강귀함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정안에 佛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사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정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령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가뵈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인터넷 주소: www.buddhanews.com

신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7 대원 BLDG 402호

金剛念珠社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77 대원 BLDG 402호